

H2KOREA 일간 수소 이슈 브리핑

- '24.6.26 H2KOREA 정책지원실 -

- ◇ 작일 언론보도 내용을 기준으로, 국내·외 수소에너지 및 수소경제와 관련한 주요 이슈를 요약 배포함

I. 국내

□ 산업계

- **울산에 국내 최대 수소가스생산 시설 들어선다**(‘24.6.25, 뉴시스)
 - 울산시는 케이앤디에너지(주)가 25일 울주군 온산국가산업단지 내 신설 공장 부지에서 수소가스 생산공장 기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힘
 - 공장 신설에는 약 2185억원이 투입되며, 온산국가산업단지 내 3만 3000㎡ 부지에 오는 2026년 4월 준공 예정
 - 해당 시설은 국내 상업용 생산시설로는 최대 규모인 시간당 9만 2000Nm³의 수소 생산이 가능해 울산이 수소산업 중심 도시로 도약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
- **빈센, 프랑스선급서 선박 적용 가능한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 인증**(‘24.6.25, 전자신문)
 - 친환경 선박 추진시스템 기술 전문업체인 빈센이 프랑스선급(BV)의 엄격한 안전 및 성능 시험을 통과하며 상업용 선박에서의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의 적용 가능성을 입증했다고 25일 밝힘
- **현대위아 “2026년까지 탄소배출 55% 감축…신재생·수소에너지 적극 활용”**(‘24.6.25, 디지털타임스)
 - 현대위아는 지속가능경영 활동과 앞으로의 경영 목표를 담은 2024년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5일 밝혔으며, 탄소중립 실현, 자원순환·환경영향 관리 등을 포함한 ESG 경영 ‘9대 추진전략’을 공개
 - ‘기후변화 대응’과 관련해서는 오는 2045년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, 이를 위해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지금의 55% 수준으로 감축하고 오는 2040년에는 20%까지 줄인다는 계획을 제시
 - 현대위아는 국내외 모든 사업장에서 신재생에너지의 구입을 지속 확대하고, 수소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생각

□ 지자체

- 제주도-뉴질랜드 '신재생에너지·그린수소 협력' 논의(24.6.25, 뉴스1)
 - 제주도는 딜런 로런스 뉴질랜드 투자청장 등 에너지대표단이 도청을 찾아 오영훈 지사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25일 밝힘
 - 도에 따르면 로런스 청장은 "제주의 에너지 정책에 큰 관심이 있어 제주 그린수소 생산시설을 살펴보고 왔다"며 "뉴질랜드는 2030년까지 '넷제로'(Net-Zero)를 목표로 하고 있어 양 지역이 유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"고 밝힘

□ 기관

- '모로코 정부·기업 방한단' 가스안전공 수소안전뮤지엄 방문(24.6.25, 이투뉴스)
 - 모로코 정부부처, 국책 연구기관, 기업경영인 등 18명으로 구성된 방한단이 25일 충북혁신도시 소재 한국가스안전공사 수소안전뮤지엄을 방문
 - 이번 방문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ODA사업과 연계, 방한 중인 모로코 대표단에게 한국의 수소기술 및 수소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, 이를 통해 양국 간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로 이뤄짐

□ 기획

- '꿈의 자원' 수소에 실망했다고?...그래도 주목해야 하는 이유(24.6.25, 한국경제)

II. 해외

□ 정부

- **인도 정부, 청정비료 생산을 위한 그린수소 기반 암모니아 구매 입찰 시장 규모 확대**(24.6.24, Hydrogen Insight)
 - 인도 신재생에너지부(MNRE)는 비료부분 수요가 예상보다 높아 기존 암모니아 입찰 규모를 기존 55만톤에서 75만톤으로 확대함
 - 국영 태양광에너지기업(SECI)는 지난달 입찰시장을 개설하여 인도 11개 지역에서 암모니아 55만톤 구매 계획을 밝힘
 - 입찰 시장은 10년 공급 계약으로 낙찰자는 3년 동안 최대 \$0.11/kgNH₃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

□ 산업계

- **발트해 인접국 9개 가스수송 시스템 운영사 간 수소 인프라 구축 촉진을 위한 MOU 체결**(24.6.18, Clean Energy Wire)
 - 발트해 인접국 9개 가스 수송 시스템 운영사들*이 수소 인프라 구축 및 청정에너지 연료시장 개발 촉진을 위한 MOU를 체결
 - * (독) Gascade, Ontras Gastransport, (폴) Gaz-System, (에) Elering, (덴) Energinet, (핀) Gasgrid Vetyverkot, (리) Amber Grid, (스) Nordion Energi, (라) Conexus Baltic Grid
 - 지역 내 수소 운송 및 저장 시설 구축 개발 협력, 재생수소 생산시설 사업 현황 및 수소 시장 관련 정보 공유 등 협력할 예정
 - 육상루트의 경우 '북유럽-발트해 수소회랑' 프로젝트*의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(24.1~)
 - * EU가 유럽 공동이득 프로젝트(PCI)로 선정한 첫 번째 수소 수송 및 저장 프로젝트로 육상 수소 파이프라인을 통해 핀란드, 에스토니아, 라트비아, 리투아니아, 폴란드, 독일을 연결
 - **관련 동향 별도 첨부파일 참조**

「수소에너지 현장으로 찾아가는 “수소ANSWER” 시즌2」 바로보기
 <매달 공개, 산업부 유튜브 채널>

<p>🎯 1화 인천 수소생산기지편 <u>“무한대로 생성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존재한다고!”</u></p>	
<p>🎯 2화 여수 수소출하센터편 <u>“현장에서 직접 알아보는 수소출하센터의 모든 것!”</u></p>	
<p>🎯 3화 원자력 청정수소편 <u>“깨끗한 수소를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다구!”</u></p>	
<p>🎯 4화 인천 연료전지 발전소편 <u>“수소를 활용한 도심 속 발전소가 있다?!”</u></p>	
<p>🎯 5화 H2MEET 편 <u>“세계 최대 수소산업 전시회를 한국에서?!”</u></p>	
<p>🎯 6화 수소의 날 편 <u>“수소경제 활성화! 우리 함께 열심히 했다고요!”</u></p>	
<p>🎯 7화 제주 그린수소 실증단지 편 <u>“바람으로 만드는 그린수소!”</u></p>	
<p>🎯 8화 수소안전 뮤지엄 편 <u>“국내 최초! 수소의 안전함을 홍보하는 수소안전 뮤지엄”</u></p>	
<p>🎯 9화 창원 액화수소 편 <u>“수소를 액화하면 부피가 800분의 1로 줄어든다고?!”</u></p>	

□ 2024년 수소산업 현장 규제개선 의견 수렴 안내

- H2KOREA 기업지원실에서 규제혁신을 통한 수소산업 생태계 확대를 위해 현장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을 상시 진행합니다.

* [링크 바로가기](#)  클릭

수소 규제 개선사항 의견 수렴 안내

□ 개요

○ 규제혁신을 통한 수소산업 생태계 확대를 위해 현장의 제도개선 사항 의견수렴 및 제도 개선 추진

- 「수소산업 규제혁신 민간협의체*」를 통해 규제개선 신속 진행

* 주요 5개 분야별 산·학·연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워킹그룹 및 수소경제정책관 주재 본회의로 구성
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.0 64건('24년 37건 해결) 이외 민간협의체 57건('24년 27건 해결) 추가 발굴

□ 제안 방법

○ (접수처) '수소경제 종합정보포털'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접수

- 웹페이지 내 '규제개선 - 규제접수' 메뉴를 통해 지원

※ (바로가기) <https://www.h2hub.or.kr/main/info/step1.do>

○ (접수기간) 상시접수(누적 접수건 연 2회 규제개선 안전 상정 진행예정)

※ 수소산업 규제혁신 민간협의체 추진절차

2	3	4	5	6	7	8	9	10	11	12
○ 신규과제 발굴(H2K) - 기업 간담회 실시 (정부인프라구축사업자, 규제샌드박스 참여기업 등) / 포털 상시접수										
○ 신규과제검토 · H2K-실무WG 사전검토 · 유사기업발굴	○ 1차 신규과제 확정 · 관리카드 절달 (KGS 등 인 허가기관)	○ 발굴과제 검토 협의 · KGS 내부 검토 · 산업부(H2K) - 타부처 협의 검토		○ 협의 및 확정 · 타부처 협의 진행 · 전체회의 진행						
						○ 2차 신규과제 확정				
○ 개선사항 안내(차년도 1월)										

○ (문의처) 수소융합얼라이언스(H2KOREA) 기업지원실

- 정태원 선임연구원(02-6258-7460, twon@h2korea.or.kr)

- 신경철 선임연구원(02-6258-7483, kcshin@h2korea.or.kr)

- 황윤주 수석연구원(02-6258-7467, yunju117@h2korea.or.kr)